

**좋은 땅, 곧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5/20 월요일

아침의 누림

갈 3:14

14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빌 1:19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창 12:7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창 13:15

15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창 17:8

8 나는 네가 지금 체류자로서 살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네 뒤를 이을 너의 씨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창 26:3-4

3 너는 이 땅에 체류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4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너의 씨에게 그 모든 땅을 주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골 1:12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고전 15:15

15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참으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고후 3:17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들이 용서되고,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이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매우 주관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아버지, 아들, 영—이시다. 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러한 분을 매일의 몫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복인가!(갈 3:14 각주 3)

갈라디아서 3 장 14 절에서 그 영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며 또한 그 영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은 복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 그 영은 복합되신 영이시고, 사실상 삼일성 안에서 육체 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강림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그분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물질적인 방면은 좋은 땅이었으며(창 12:7, 13:15, 17:8, 26:3-4), 그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참조 골 1:12 과 각주 2). 그리스도는 결국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재화되었으므로(고전 15:45, 고후 3:17),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복과 일치한다.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재화이신 그 영은 사실상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의 근원인 좋은 땅이시다.(갈 3:14 각주 2)

오늘의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3 장 14 절의 문맥에 따르면, 그 영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시며 또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은 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초점이 아브라함의 씨가 땅을 상속받는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3 장에 따르면, 이 씨 곧 유일한 씨는 그리스도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좋은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예표이다. 한 면에서 그 씨는 그리스도이다. 또 다른 면에서 좋은 땅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약속된 복의 초점이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 장 14 절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 절은 우리가 그 영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3 장

14 절에 있는 그 영께서 아브라함의 복이심을 가리킨다.

어떠한 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떠한 영이 모든 것을 포함한 복, 즉 씨이시며 땅이신 그리스도가 되겠는가? 이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 영이심에 틀림없다. 고린도전서 15 장 45 절은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3 장 17 절은 주님께서 지금 그 영이시라고 선포한다. <흠정역 성경>의 고린도후서 3 장 17 절은 '저것'을 의미하는 '지시 대명사(that)'를 사용하여 '그 영(that Spirit)'이라고 번역한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닌데, 그 이유는 이 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영어의 '정관사(the)'에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번역은 '그 영(the Spirit)'이며, 이 영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전까지 '아직 계시지 않았던' 그 영을 가리킨다.

주님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성령은 신성뿐 아니라 인성의 요소도 갖게 되셨다. 그때부터 성령은 주님의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로 복합되시어 그 영이 되셨다. 그 영은 신성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복합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뿐 아니라, 그분께서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모든 것이 '그' 영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즉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다. 이 영께서 바로 복음의 복이시다.(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 149-15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

5/21 화요일

아침의 누림

신 8:7

7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시 36:8-9

8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9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시 46:4

4 강이 하나 있어 그 흐름이 하나님의 성을, 가장 높으신 분의 장막의 거룩한 곳을 즐겁게 한다네.

신 11:11-12

11 그러나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입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12 그 땅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땅입니다.

창 2:10

10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계 22:1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좋은 땅 곧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을 위해 그들에게 할당된 유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골 1:12 과 각주 2, 2:6-7 와 6 절 각주 2, 갈 3:14 과 각주 2)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하며 완결된 예표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골 2:9),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재화되신다(고전 15:45, ...). 신명기 8 장 7 절부터 9 절까지에 언급된 좋은 땅의 풍성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넘치는 공급이 되시는(빌 1:19)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엡 3:8)의 여러 방면을 보여 주는 예표이다. 시내와 샘과 원천은 흐르시는 영이신(요 4:14, 7:37-39, 계 22:1)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골짜기와 산은 우리가 흐르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환경을 상징한다(비교 고후 6:8-10).(신 8:7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통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신다. ... 이 강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린다(계 22:1). 이 강은 창세기 2 장 10 절부터 14 절까지와 시편 46 편 4 절과 에스겔서 47 장 5 절부터 9 절까지에 있는 강들로 예표되며, 그 흐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을 의미한다. 이 강은 창세기 2 장 10 절부터 14 절까지에서 하나의 강이 네 줄기가 되었듯이, 거룩한 성의 사방으로 흐른다. 요한복음 7 장 38 절이 가리키는 것처럼, 풍성을 지닌 이 하나의 강은 우리의 체험 안에서 많은 강들이 된다.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흘러 보내시어,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물로 예표되었고(출 17:6, 민

20:11), 창에 찢린 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로 상징된다(요 19:34). 요한계시록 22 장 1 절에서 그 생명수는 강이 되며,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새 예루살렘 전체를 공급하고 적신다. 이처럼 이 성은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을 표현하게 된다.

창세기 2 장 10 절에 따르면,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 하나는 결국 네 줄기가 되어 땅의 사방에 이르렀다. 구약에는 이 강을 언급하는 다른 많은 관련 절들이 있다. ... 에스겔서 47 장에서는 물이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물은 '헤엄칠 정도의 물, 건널 수 없는 강'(5 절)이 된다. 같은 장 9 절은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 지어 사는 온갖 생물이 살 것이고"라고 말한다.

이 강은 또한 신약에서도 언급된다.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광야에서의 방황에 대해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0 장 4 절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목말라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하면 반석에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나올 것이었다(출 17:1-6). 모세는 그렇게 했고, 주님은 '반석에서 시내가 흘러나와 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셨다'(시 78:16). 맑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생명 주시는 영의 예표였다.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이 영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 장 10 절에서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14 절에서는 "...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요한복음 7 장 37 절과 38 절에서 ... 그 하나의 강이 많은 강들이 되는 것을 본다. 생수의 강들은 생명의 다양한

방면을 지닌 많은 흐름이며(비교 롬 15:30, 살전 1:6, 살후 2:13, 갈 5:22-23), 유일한 생명수의 강(계 22:1)에서 발원한다.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롬 8:2)이다.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5, 752-75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4 장

5/22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10-12

10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고후 1:9

9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후 4:7-9, 13-14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짓눌리지 않으며,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어도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14 이것은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 4:13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신약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는 고난, 박해, 또는 다름이 있다. 이것은 질병이나 재난같이 옛 창조물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과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죄들, 실수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징벌, 교정 혹은 징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우리의 타고난 사람과 걸사람과 육체를 소멸시킴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은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후 4:16).(고후 4:10 각주 1)

십자가에 죽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한다. 이렇게 매일 죽는 것은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다.(고후 4:10 각주 3)

고린도후서 4 장 10 절과 11 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칭호는, 사도들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셨던 것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님의 생활은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 살았던 생활이다. 또한 주님의 생활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하나였고, 그분의 생활이 곧 사역이었던 그러한 생활이었다(요 6:14-15, 12:13, 19, 23-24).(고후 4:11 각주 1)

우리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된다. 다른 사람들 안으로 생명이 분배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결과이다.(고후 4:12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신명기를 볼 때, 이 물은 골짜기와 산에서부터 흐르고 있다. ... 모든 땅이 평평하다면 물은 결코 흐르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6 장 8 절부터 10 절까지에서 바울은 대조되는 많은 것들, 즉 많은 산과 골짜기를 언급하고 있다. “영광과 모욕, 악평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혹시키는 사람들 같으나 진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것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광’은 산이고, ‘모욕’은 골짜기이다. ... ‘가난한 것’은 또 하나의 골짜기이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단지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이다. ... 이 절들에는 적어도 아홉 개의 짝, 즉 아홉 개의 골짜기와 아홉 개의 산이 있다. 이것들이 바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여러분이 고통을 더 많이 당할수록 여러분 속에는 더욱더 많은 흐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더 많이 낮추어지고 여러분에 대한 악평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물은 더욱더 많이 흐를 것이다.

모든 골짜기는 십자가의 체험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체험이다. 또한 모든 산은 주님의 부활의 체험이다. ... 우리는 항상 어떤 고통 즉 골짜기를 체험할 뿐 아니라, 언제나 산 즉 부활을 체험해야 한다. 골짜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산이 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할 때마다 부활도 체험할 것이다. 생수는 이 모든 체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골짜기와 산에’ 물이 흐른다(신 8:7). 이 절은 ‘산과 골짜기에’라고 하지 않고 ‘골짜기와 산에’라고 말한다. 먼저는 골짜기이고, 그다음이 산이다. ... 왜냐하면 여러분이 흐르는 물을 접촉하는 첫 번째 장소는 골짜기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 시내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시내가 산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시내는 골짜기에 있지만, 샘은 산에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을 적시는 물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골짜기에 있어야 한다.(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4 장, 65-6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11

5/23 목요일

아침의 누림

렘 2:13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그것들은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요 4:13-14

13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렘 2:1-5, 7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2 “가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예루살렘의

귀에다 외쳐라. ‘네 어린 시절의 그 다정함과 네 신부 시절의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하나니 그때 너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라다녔다.

3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거룩함이요 여호와와 소출의 첫 열매였으니 그것을 먹은 자는 모두 죄가 있어 재앙이 그들을 덮었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4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어라.

5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발견하였기에 나를 멀리 떠나 헛된 것을 따라다니다가 허망하게 되었느냐?

7 내가 너희를 과수원의 땅으로 이끌어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와서 나의 땅을 더럽히고 나의 유업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그들을 만족시키는 생수의 원천이자 근원이 되시는 것이다. 이 누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증가이자 하나님의 확장인 교회, 곧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선한 기쁨이다(엡 1:5, 9). 이러한 사상의 완전한 발전은 신약에 있지만, 그 사상은 예레미야서 2 장 13 절에 씨로서 뿌려져 있다.

이 사상은 요한의 글들에서 발전된다. 요한복음 1 장 1 절과 14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셨던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고, 그분께서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신 것을 본다. 16 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고 말한다. ...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관해

말씀하셨다(요 4:10, 14). 요한복음 7 장 38 절에서 주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 요한계시록 22 장 1 절과 2 절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과, 이 강을 따라 생명나무가 자라면서 성 전체를 유지하고 성 전체에 자양분을 주는 생명 공급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요한의 글들에서 우리는 확실히 예레미야서 2 장 13 절에 뿌려진 씨가 자란 것을 본다.(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사상은 바울의 글들을 통해 강화된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 장 13 절은 “우리가 ...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그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영을 마시는 것은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존재가 그분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 장 3 절과 4 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예표들을 사용하여 마시는 것뿐 아니라 또한 먹는 것을 언급한다.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영적인 음식은 만나를 가리키며(출 16:14-18), 우리의 매일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영적인 물은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가리키며(출 17:6),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모든 것을 포함한 음료이신 그 영을 예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수로 마시는 것은 그분의 증가인 교회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마시는 것은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확대 곧 그분의 충만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예레미야서 2 장 13 절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어떤 것, 곧 생수의 원천을 볼 뿐 아니라 또한 부정적인 어떤 것, 곧 이스라엘 자손이 이 원천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을 판 것을 본다. 이 부정적인 것은 창세기 3 장의 아담처럼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아담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또 다른 나무, 곧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 돌아섬으로써 타락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근원을 향해 돌아섬으로써 타락했다. 이 다른 근원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 수고하여 팠던 저수조들로 상징된다. 하나님의 부담은 이스라엘이 그분을 마심으로 그분의 충만인 그분의 증가가 되어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셔야 했지만, 오히려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었고, 두 번째 악은 또 다른 근원인 저수조들을 판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저수조들은 새서 물을 담아 둘 수 없었다. 이것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가리킨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생수로 분배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증가로 만들 수 없다.(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8-2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12, 16-17, 40

5/24 금요일

아침의 누림

사 12:3-6

3 그러기에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길으리라.
4 그날에 너희는 말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알리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심을 일깨워 주어라.
5 여호와를 찬송할지니 그분께서 장엄한 일을 하셨음이라! 온 땅이 이것을 알게 하여라!
6 외치며 환호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 가운데 위대하신 까닭이라.”

요 7:37-39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잠 11:25

25 축복하는 혼은 잘되며 물을 주는 이는 자신도 물을 얻게 된다.

골 1:18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벧후 1:4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2 장에 있는 구원의 샘들을 고려할 때 ... 우리는 '원천(fountain)'과 '샘들(springs)'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신명기 8 장 7 절은 좋은 땅에 관하여 "그땅은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라고 말한다. 원천은 근원이고, 샘들은 근원의 결과이며, 시내나 강은 흐름이다. 요단강의 근원은 헤르몬산에 있다. ... '샘'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은 솟구쳐 나오거나 솟구쳐 오르는 것을 뜻한다. 출애굽기 15 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의 여정 중에 엘림에 도착한 것에 관하여 말한다. 엘림에는 열두 곳의 샘과 일흔 그루의 야자나무가 있었다(27 절).

이사야서 12 장은 '샘'이라는 말을 단수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샘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사용했다. 3 절은 "그러기에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 기뻐하며 물을 길으리라."라고 말한다. '구원의 샘들'이라는 말은 구원이 근원임을 의미한다. 구원의 샘들의 근원은 원천이고, 그 원천은 구원이다. '근원'과 '원천'과 '구원'은 동의어이다. 이사야서 12 장에서 누가 근원이자 원천이자 구원인가? 2 절은 "이제 하나님은 저의 구원이시니 /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합니다. / 야 여호와께서 제 힘과 노래이시며 / 제 구원이 되신 까닭입니다."라고 말한다.(이사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0, 320-32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구원의 원천에서 샘들이 나온다. 이러한 구원은 야 여호와(Jah Jehovah)이다. 신약에서 주 여호와는 예수, 곧 육체 되신 하나님이다.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한다. 이 구원은

모든 우물들의 근원이다. 요한복음 7 장 38 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단지 강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강들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온다. ... 여러 강들은 모두 한 영을 가리킨다. ...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일곱 영(1:4, 4:5, 5:6)은 하나님의 한 영께서 일곱 배로 강화되신 것이다.

요한복음 4 장에서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 생수가 그녀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4 절). 요한계시록 21 장 6 절에서 주님은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구약과 신약 모두 생수가 하나님의 실지적인 구원임을 보여 준다. 이 실지적인 구원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주님을 마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또한 그분을 우리 안으로 호흡해 들여야 한다. 영적 실재에 따르면, 호흡하는 것은 마시는 것이다. 바버(M. E. Barber) 자매님은 한 찬송에서 "주의 이름 호흡함이 / 참생명을 마심일세"라고 말했다(찬송가 65 장 2 절). 예수님의 이름을 호흡하는 것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다.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우리는 호흡하며, 호흡함으로써 우리는 마신다.

이사야서 12 장은 물을 길는 것을 말한다(3 절).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마시기 위한 것이다. ... 4 절은 "그날에 너희는 말하리라. /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흥정역 성경)라고 말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처럼 같이 놓여 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언제나 찬송하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가 "오, 주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만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찬송하는 것이자 호흡하는 것이다. ... 이제 신성한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길는 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사 12:1). 우리는 또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4 상절). 더 나아가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길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높아지게 해야 한다(4 하절). 또한 우리는 그분께서 하신 장엄한 일에 대해 노래하며, 온 땅이 이것을 알게 해야 한다(5 절).(이사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0, 321-322, 324, 32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이사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40

5/25 토요일

아침의 누림

렘 17:7-8

7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

8 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냇가로 뺏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무성하여 가문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요 4:14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을 이룰 것입니다."

렘 17:5-6, 9-10, 13-14

5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6 그는 사막의 덤불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메마른 곳 소금 땅과 사람 살지 않는 곳에 거주하리라.

9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치유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랴?

10 나 여호와와는 마음을 살피고 속부분을 시험하며 각 사람의 길과 그 행실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13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님! 주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서 돌아서는 사람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그들이 생수의 원천인 여호와를 저버린 탓이라.”

14 “오, 여호와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올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찬양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렘 2:13 상)을 상징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 나무는 물에 담긴 모든 풍성을 흡수하여 강가에서 자란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분배의 그림이다. 신성한 분배를 받기 위해 나무들인 우리는 물이신 하나님을 흡수해야 한다.

물 주는 것은 나무가 흡수하기 위한 것이고, 흡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배를 받는 것이다(비교 고전 3:6). 그 나무는 공급자이시며 공급이신 하나님으로 자란다. 공급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이 식물인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이 공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식물과

하나님, 하나님과 식물은 동일한 요소와 본질과 조성과 모양을 갖게 되어 하나가 된다.

예레미야서 17 장 7 절과 8 절은 ... 하나님의 분배로 수행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언급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성이 되시기 위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는 생수이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요소와 본질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생수이신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를 보아야 한다.(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6, 135-13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포함한 우리 온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이 무력하고 연약하며 스스로 설 수 없고 형편없으며 목마르다는 것과, 또한 자신이 복음을 위한 말씀이 부족하고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탄식하며 시인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그분 앞에 내어놓고, 심지어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송이 있다(찬송가 724 장).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참된 상태에 가까울수록 더 좋다. ...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혼란스럽고 슬프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다. ... 우리의 상태는 그분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접촉하는 것만

관심하신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는 길이 있으시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께서 길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연약하다면, 그분께서 바로 능력이시다. 우리가 형편없다면, 그분께서 바로 온전함이시다. 우리가 일어서지 못한다면, 그분께서 바로 일어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인도가 결핍되어 있다면, 그분께서 바로 인도이시다. 우리에게 할 말이 없다면, 그분께서 바로 말씀이시다. ... 우리는 기다리거나 우리 자신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자신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갈수록 더 좋다.

우리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흡수함으로써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이것은 달콤한 공과이다. 우리가 이 공과를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그분의 달콤함을 맛볼 것이다. 우리가 매일 약간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흡수한다면, 우리는 빛과 능력을 받아들이고, 평화롭고 밝고 강하고 능력 있게 될 것이다.(기도의 의미와 목적, 1 장, 19-21 쪽, 2 장, 44-45 쪽)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이르신다’. ... 영원한 생명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종착지이다. ... 새 예루살렘은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총체이다. 영원한 생명은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이를 것입니다’는 ‘새 예루살렘에 이를 것입니다’를 의미한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4 장, 18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기도의 의미와 목적, 1-2, 4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4 장

5/26 주일

아침의 누림

겔 47:1-12

- 1 그분은 다시 집 입구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물이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집은 동쪽을 향해 있었다)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은 집의 남쪽 아래, 제단 남쪽을 지나서 흘러내려 갔다.
- 2 또 그분은 나를 북문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바깥문으로 나가는 길 곧 동쪽을 향한 문으로 가는 길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곳에는 물이 남쪽에서 흘러나가고 있었다.
- 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들고 동쪽으로 나가 천 규빗을 측량하였다. 그분은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 4 그분은 또 천 규빗을 측량하시고 나서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분은 또 천 규빗을 측량하시고 나서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 5 그분은 또 천 규빗을 측량하셨는데, 그곳은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다. 물이 차올라 헤엄칠 정도의 물,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이다.
- 6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시고는 나를 이끄시어 다시 강둑으로 데리고 가셨다.
- 7 내가 돌아왔을 때, 강둑 이쪽과 저쪽에는 나무가 매우 많았다.
- 8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료된다.
- 9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 지어 사는 온갖 생물이 살 것이고, 이 물이 흘러갈 때 거기에 매우 많은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바닷물이

치료되리니,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10 엔게디부터 엔에글라임까지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서리니, 그곳은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 물고기도 그 종류대로, 대해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11 그러나 늪과 습지는 치료받지 못하리니, 그곳들은 소금 땅이 될 것이다.

12 강둑 양쪽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자랄 것이다. 그 잎들이 마르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것은 그들을 위해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며, 그 잎들은 치료에 쓰일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11

찬송: 251 (英) 하늘의 보좌에서 (中:203)

1 하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 흐르네 축복을 흠-뻑 담고 그리스도로부터

(후렴)

값없이 모-두 마실 생명수 날- 거처 모든 사람-의 갈증 풀도록 흐르소서.

2 수정과 같-은 생수 풍성한 공급 있네 누구나 목-마르면 값없이 사 마시라

3

주여 날 통-로 되게 정결케 해 주소서 나로 주 순-종케 해 날 사용하옵소서

4 생수 강 흐-를 때는 바로 지금 이떨세 날 통해 흐-를 때에 주 풍성 알게 되리

5 모든 것 가-져와서 주의 발 앞에 드러 범사에 어-디서나 생수가 흐르도록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Week 13)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5:7-10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24-25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Partners of Christ

Scripture: Heb. 3:13-15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 16

Supplemental Reading: None

Questions:

- 1. What is the significance of being partners of Christ?
- 2. When did we become partners of Christ?
- 3. What is the enterprise of the partners of Christ?
- 4. In Heb. 3:14, what must we do as partners of Christ?